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선정책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in Korea

윤 정 옥 (Cheong-Ok Yoon)*

< 목 차 >

I. 머리말	III.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의 현황과 선정책의 분석
II. 선행연구	IV. 결 론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현황을 정리하고, 특별히 책의 선정과 관련된 경향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국내 1,170개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주요한 독서 및 문화관련 기관, 단체의 홈페이지, 지자체와 도서관의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내용분석 및 문헌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온라인목록을 검색하여, 2021년 기준 지자체 시행 57개 ‘한 책’ 프로그램 및 그동안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된 책 729종 1,119권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지자체 시행 57개 ‘한 책’ 프로그램과 이들이 2003년부터 2021년 사이 선정된 책들의 분석은 점점 더 많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연령별 책의 분산 선정, 책들 간 주제적 연관성 결여, 청소년수준 책, 신간 및 대중적 화제작 문학책의 선호 등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책의 선정 경향은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한 집중성 결여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에 대한 가시성 증대 및 관심계층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었다. 향후 개별 ‘한 책’ 프로그램의 책 선정의 과정, 목표와의 부합성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한 책’ 독서운동, 지역사회 독서운동, 도서선정, 공공도서관 행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ocument the current state of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campaign (Hereafter called ‘One Book’ reading campaign), launched in 2003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books. For this research, the homepages, news and reports of a total of 1,170 public libraries and their local government, and several majo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reading and culture were analyzed with the research method of content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Also, online catalog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729 titles and 1,179 volumes of books selected in 57 ‘One Book’ programs, as of 2021. The analysis of 57 ‘One Book’ programs and those selected books shows the selection of more than one books in different age groups in more and more ‘One Book’ programs, lack of consistency in themes of those selected books, and preference for young adult books, new publications and bestselling novels. This trend has weakened individual ‘One Book’ programs’ concentration on one book or one subject, but helped invite a diverse group of people with various interests. More in-depth analysis and explanation of the process of book selection and its appropriateness with the stated goals of ‘One Book’ programs are needed.

KEYWORDS: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One Book’, Community Reading Campaign, Book Selection, Events in Public Libraries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ISNI 0000 0000 4145 6478)

- 논문접수: 2022년 5월 25일 • 최초심사: 2022년 5월 27일 • 게재확정: 2022년 6월 2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165-188,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165>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머리말

지난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 부름)은 공공도서관 역사상 가장 두드러지는 혁신적인 활동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윤정옥, 2013b, 22). ‘한 책’ 독서운동은 1998년 최초의 ‘한 책’ 프로그램인 시애틀의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후에 ‘Seattle Reads’로 이름을 바꿈)’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공공도서관의 전통적인 주요 이용자인 어린이나 청소년들보다는 주로 일반 성인대중을 위한 독서진흥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미국 시카고의 ‘한 책’ 프로그램인 ‘One Book, One Chicago’에서 “책은 시작일 뿐이다”(Chicago Public Library, 2021a)라고 선언한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의 독서 및 토론과 더불어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지금까지 많은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공유되고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한 책’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한 책’ 지역사회 독서운동을 위해 개별 지역사회가 진행하는 특정한 독서행사를 의미하도록 사용하였다.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은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충남 서산시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최초의 ‘한 책’ 프로그램인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과 함께 출범하였다. 이후 2004년에 시작된 부산광역시 ‘원 북 원 부산’을 비롯하여, 매년 몇 개씩 새로운 ‘한 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여러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거의 이십 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전반적 현황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 사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21)의 2019년 데이터에 따른 국내 1,170개 공공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한 독서 및 문화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지자체와 도서관의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으로써 2021년 기준,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57개 ‘한 책’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고, 이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된 729종 1,119권의 책을 확인하였다. ‘한 책’ 독서운동에서는 함께 읽을 책의 선정이 가장 우선적 이면서도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책들의 서지정보, 독자수준 및 주제 등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온라인 목록을 조사하여 확인함으로써 지난 이십 년간 책의 선정에 반영된 ‘한 책’ 프로그램들의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내용분석 및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한 책’ 독서운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II. 선행연구

‘한 책’ 독서운동의 시작 초기, 미국, 영국 및 캐나다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으로서 이론 성과에 주목한 몇몇 연구(Fuller & Sedo, 2004; University of Birmingham, 2006)가 있었고, 실제로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을 나타내는 Mass Reading Events(MRE)라는 용어는 이들 연구에서 Fuller와 Sedo(2004)가 제안한 바 있다. 이후 Harder, Howard, Sedo(2015)는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에서 진행된 ‘One Book Nova Scotia’의 2012년과 2013년 참여자 서베이 데이터 및 트위터 토론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주로 도서관, 도서출판 및 미디어 업계 등에 종사하는 50대의 고학력 여성들의 참여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제외하고, 최근 ‘한 책’ 독서운동에 관한 해외 학술 연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한 책’ 독서운동이 진행된 지 삼십여 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한 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례조사나 실무적 분석들이 있었다. 시카고 시의 초등학교 교사인 Brock, Dunifon, Nagel(2016)은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여 지역의 5개 학교 초등학교와 링컨파크 동물원이 연합하여, 저학년 학생들이 Katherine Applegate의 2013년 뉴베리상 수상작 *The One and Only Ivan*(2012)을 함께 읽으면서 STEAM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 책’ 독서운동이 어린 학생들도 함께 책을 읽고, 독서토론, 작가의 방문, 강연, 영화감상 등 같은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 책’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는 2003년 이후 시작되었다. 윤정옥(2004; 2005; 2007; 2009), 이용재(2006) 등이 초기부터 국내·외 ‘한 책’ 독서운동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한 ‘한 책’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윤정옥은 미국의 ‘한 책’ 독서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2013a; 2013b)를 수행했고, 미국의 ‘한 책’ 독서운동 20년 동안 선정된 책(2017) 및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 10년 동안 선정된 책(2018)을 각각 분석하였다. ‘책 읽는 청주’(윤정옥, 2008; 2021a), ‘김해의 책’(윤유라, 2017), ‘원북, 원부산’(이국환, 2018; 이용재, 2008) 및 ‘성북구 한 책 읽기’(조찬식, 2013) 등 개별 ‘한 책’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개별 지역 ‘한 책’ 프로그램의 목표와 책의 선정 절차, 행사내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윤희와 김종성(2014)은 국내에서 2003년부터 2014년 사이 시행된 31개 지역사회 ‘한 책’ 독서운동의 선정도서 473권 357종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 ‘한 책’ 독서운동의 취지와 목적, 도서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을 살펴보고, 책의 선정 횟수, 출판연도, 저자, 갈래(장르), 소재(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간도서와 어린이대상 도서 선호 및 지역성 반영 등의 특성과 더불어, 국내도서 중심이며 소설이 압도적 중요성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우윤희와 김종성의 연구는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의 첫 십 년의 성과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윤정옥(2021b)은 2021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57개 ‘한 책’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선정책과 주요한 행사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기록하고, 현장 사서들과 대담으로써 ‘한 책’ 독서운동의 성과와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개별 ‘한 책’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던 책 선정기준, 실제 선정한 책들의 명단 및 최근 진행된 행사 내용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발전하면서 미국의 ‘한 책’ 독서운동과도 다른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적 ‘한 책’ 독서운동의 특성과 지향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Ⅲ.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의 현황과 선정책의 분석

1. ‘한 책’ 독서운동의 일반적 현황

가. ‘한 책’ 프로그램의 시행 현황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은 2003년 최초의 ‘한 책’ 프로그램인 충남 서산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2021년 10월 기준, 그동안 국내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작된 ‘한 책’ 프로그램은 모두 57개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1>은 이 연구에서 파악된 57개 ‘한 책’ 프로그램을 시작연도 순으로 정렬하고,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한 책’ 프로그램의 명칭, 주관기관 및 책의 선정부문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1> 국내 ‘한 책’ 프로그램 현황: 2021년 10월 기준

시작	광역시·도	시·군·구	프로그램명	주관기관	책 선정부문		
					일반	청소년	어린이
2003	충남	서산시	범시민 한 책읽기 운동	서산시립도서관	○		○
	강원	원주시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원주시립중앙도서관		○	
2004	부산	부산	원북 원부산	부산광역시공공도서관	○	○	○
	서울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서울도서관	○	○	○
	전남	순천시	One City One Book	순천시립도서관	○		
	전북	익산시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익산시립도서관	○	○	○
2005	경기	부천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부천시립도서관	○		○
2006	경북	포항시	원북 원 포항	포항시립도서관	○		
	충북	청주시	책 읽는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	○
2007	경남	김해시	김해시 올해의 책	김해시립도서관	○		○
	경남	양산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1, -2020)	양산시립도서관			○
	경북	구미시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구미시립중앙도서관	○		○
2008	경기	평택시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평택시 도서관	○	○	○
	대구	대구	대구시립도서관 한 책 읽기 (-2020)	대구시립도서관	○		
	대전	대전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희망의책 대전본부	○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선정책에 관한 연구

시각	광역시·도	시·군·구	프로그램명	주관기관	책 선정부문		
					일반	청소년	어린이
2009	경기	용인시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용인시도서관사업소	○	○	○
	제주	서귀포	서귀포 시민의 책 One City One Boo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공공도서관	○		
2010	전남	광양시	시민 한 책 읽기	광양시립도서관	○	○	○
2011	경기	의정부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올해의 책	의정부시도서관	○	○	○
	경기	군포시	원북 원군포 (-2018)	군포시립도서관	○		○
	서울	성북구	성북구 한 책 읽기	성북구립도서관	○		○
	전북	완주군	완주군 올해의 책	완주군립도서관	○		
2012	서울	관악구	관악의 책 (-2018)	관악구	○	○	○
	울산	북구	함께 읽는 북구의 책	울산북구구립도서관	○		
	인천	부평구	책 읽는 부평	부평구립도서관	○		
2013	전남	전남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전라남도도립도서관	○	○	○
	광주·전남	광주	광주·전남독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전남대학교	○		
2014	전남	장성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장성공공도서관(전남교육청)	○	○	○
	경기	양주시	양주의 책	양주시립도서관	○	○	○
	서울	구로구	구로의 책	구로구	○	○	○
	인천	남동구	남동구 한 책 읽기 운동, 남동의 책	남동구립도서관	○	○	○
	전남	목포시	시민 한 책 읽기	목포시통합도서관	○	○	○
2015	제주	제주시	책 섬, 제주, 올해의 책	우당도서관	○	○	○
	경기	안산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안산시도서관	○	○	○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 한 책 읽기	노원구	○	○	○
2015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북	미추홀구립도서관	○	○	○
	전북	정읍시	책 읽는 정읍, 한 권의 책	정읍시립도서관	○		○
2016	인천	계양구	계양구 올해의 책	계양구립도서관	○		○
	충북	충주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9)	충주시립도서관	○		○
2017	충남	공주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9)	공주시립도서관	○		○
	충남	논산·계룡	한 책 함께 읽기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		○
2018	강원	동해시	동해시 올해의 책	동해시립도서관	○		○
	경북	안동시	안동시 한 책 읽기 (-2020)	안동시립도서관		○	
	부산	기장군	원북 원기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
	충북	진천군	책 읽는 진천	진천군립도서관	○	○	○
2019	강원	춘천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춘천시/춘천사람들	○		
	경남	경남	함께 읽어요!! 경남의 책	경남대표도서관	○		○
	경남	창원시	창원의 책	창원시도서관사업소	○	○	○
	울산	울산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울산도서관	○	○	○
	전북	전주시	전주 올해의 책	전주시	○	○	○
2020	광주	동구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광주광역시 동구	○	○	○
	서울	중구	중구 한 책 읽기 (-2020)	중구구립도서관	○		○
	인천	인천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남	전남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	○	○
2021	충남	아산시	아산시의 한 책 함께 읽기	아산시립도서관	○	○	○
	세종	세종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세종시도서관	○		
2021	인천	동구	동구 어린이 한 책 읽기	동구구립도서관			○

국내 ‘한 책’ 프로그램들의 책 선정부문은 <표 1>의 맨 오른쪽 컬럼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한 책’ 프로그램이 최근 시행연도, 즉 2020년이나 2021년에 일반, 청소년 및 어린이의 3개 부문 중 어떤 부문에서 책을 선정하였는지 보여준다. 일부 중단된 ‘한 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종 시행연도의 책 선정 부문을 보여준다.

<표 1>에서 ‘한 책’ 프로그램의 명칭 옆에 원괄호 안 연도가 병기된 것은 이 연구의 조사시점인 2021년 10월 기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한 책’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전체 57개 ‘한 책’ 프로그램 가운데, 경기도 군포시의 ‘원북 원군포’(-2018), 경남 양산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2020), 경북 안동시의 ‘안동시 한 책 읽기’(-2020), 대구시의 ‘대구 시립도서관 한 책 읽기’(-202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관악의 책’(-2018)과 중구의 ‘중구의 책’(-2020), 충북 충주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2019) 및 충남 공주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2019)의 8개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11년 시작되어 매년 꾸준히 진행되었던 ‘원북 원군포’는 민선지자체장이 바뀌면서 2018년 이후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2012년에 시작된 ‘관악의 책’ 또한 매년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도서 부문에서 각 한 권씩 책을 선정하였으나 2018년까지만 진행되었다. 2008년 대구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017년부터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로 전환되었고, 2018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된 대구광역시립도서관(2022)의 ‘대구시립도서관 한 책 읽기’는 매년 한 권씩 책을 선정하였으나 2020년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해냄 2018)를 선정하여 공지한 이후, 책을 선정할 기록이 없고,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 8개 ‘한 책’ 프로그램들도 중단 이전에는 거의 매년 진행되었고, 나머지 49개 ‘한 책’ 프로그램은 대부분 첫 시행연도 이후 매년 일 회씩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6년 처음 출범한 ‘책 읽는 청주’는 예외적으로 매년 두 차례 시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일 회 시행으로 전환되었다. 일부 ‘한 책’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표 1>에 보는 57개 ‘한 책’ 프로그램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와 서울시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같은 광역시·도 단위의 ‘한 책’ 프로그램은 묶어서 단지 하나의 ‘한 책’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으나, 실제로는 포괄하는 지역 규모가 크고 참여하는 도서관들의 수가 많다. 인천교육청이 주관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에는 교육청 소속 북구도서관, 서구도서관 등 9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각각의 관할자치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주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는 교육청 소속 담양공공도서관, 영광공공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이 참여하면서, 각각 군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단, 전남교육청 소속 장성도서관은 2013년부터 자체적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독립적 ‘한 책’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 시작된 서울시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많은 자치구 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한 개의 ‘한 책’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노원구의 ‘노원구민 한 책 읽기’나 성북구의 ‘성북구 한 책 읽기’처럼 서울시 내

개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어온 '한 책' 프로그램은 개별적 '한 책'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표 1>에서 정리한 57개 '한 책'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은 실제로는 더 넓고 큰 지역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한 책' 독서운동의 시작과 지속성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은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충남 서산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필두로 하여 시작되었고, 매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한 책' 프로그램이 시작됨에 따라 점차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별히 2004년에 원주, 순천, 부산 및 익산, 모두 네 곳에서 '한 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2021년 말 기준, 매년 지속되는 대표적 '한 책'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서울에서도 '책 읽는 서울'이라는 명칭의 독서문화 캠페인이 출범했고, 이 '한 책'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시립도서관이 주관하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2006년에는 충북 청주시의 '책 읽는 청주'와 경북 포항시의 '원북 원포항'이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꾸준히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4-5개의 '한 책'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2019년 및 2020년에는 각각 5개의 '한 책'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되었고, 2021년에도 세종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와 인천시 동구의 '동구 어린이 한 책 읽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지난 몇 년 사이 시작된 '한 책' 프로그램들이 지속될 것인지는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던 대부분 '한 책'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도 매년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한 책' 독서운동이 비교적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십 년이 가까워지면서 이른바 성년이 되어가는 '한 책' 독서운동이 지속성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성장해왔으니, 이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도약할 것인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한 책' 프로그램의 지자체별 시행규모

지금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된 57개 '한 책' 프로그램들 가운데에는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한 책'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시 올해의 책', 전남 순천시의 'One City One Book' 등 모두 30개 '한 책' 프로그램(52.6%)이 시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 장성군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전북 완주군의 '완주군 올해의 책' 및 충북 진천군의 '책 읽는 진천'의 3개 '한 책' 프로그램은 군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한 책'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이다. 서울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첫해인 2004년에는 '책 읽는 서울' 독서 캠페인이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가, 2005년부터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로 명칭을 바꾸어 동대문구, 중구 등 자치구 단위로 진행하지만, 여전히 서울시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광역시·도 단위로 진행되는 '한 책' 프로그램은 모두 8개로 부산광역시의 '원북 원부산', 대구광역시의 '대구시립도서관

한 책 읽기, 대전광역시의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울산광역시의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인천광역시의 '미추홀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광주·전남 북', 전라남도의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및 경상남도의 '함께 읽어요!! 경남의 책'이 이에 해당한다. 인천교육청도서관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는 미추홀구, 계양구 등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들이 참여하고, 전남교육청도서관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나주시, 담양군 등 5개 시·군 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인천 및 전남 전역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대구시립도서관 한 책 읽기'는 비록 2020년 이후 진행된 기록이 없지만, 대구광역시 전체를 포괄하는 규모이며, '광주·전남 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대학도서관, 광주광역시교육청까지 참여하는 수준이다.

라. '한 책' 프로그램의 책 선정 경향

원래 '한 책' 독서운동은 그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Seattle Reads'나 'One Book, One Chicago' 같은 대표적인 '한 책' 프로그램들은 처음부터 도서관 방문경험이 적거나 독서율이 낮은 성인대중을 겨냥하여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독서하고 토론하며 행사까지 진행하는 집중성을 갖고자 했다. 주된 목표가 성인대중임에 따라 주로 일반수준의 책을 선정하였고(Chicago Public Library, 2021b), 지금도 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종종 어린이나 청소년책을 동반해서 선정하기도 하지만, 이 책들은 말 그대로 행사를 보완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 점을 비교하자면,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은 책의 선정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 '한 책' 프로그램들 가운데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어린이와 일반, 어린이, 청소년과 일반 등 연령대를 구분하여 한 권씩 선정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들 가운데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권을 선정하다가 나중에 연령대별로 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표 1〉은 57개 '한 책' 프로그램들이 최근 시행연도에 어떤 부문에서 책을 선정하는지를 보여준다. 2021년 기준, 한 개 부문에서만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모두 17개이다(29.8%). 그 가운데 일반부문에서만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광주·전남 북', '완주군 올해의 책', '원북 원포항', 춘천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11개이다. 예를 들어, '대구시립도서관 한 책 읽기'는 2018년 정문정 작가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2019년 김애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 2020년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등 꾸준히 일반대상 책을 선정하였다. 한편 일반부문에서 책을 선정한다고 분류된 '한 책' 프로그램들이 매년 반드시 일반대상 책만을 선정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원북 원포항'은 대체로 매년 일반대상 책을 선정했으나, 2008년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 2019년에는 어린이책 『박중령을 지켜라』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020년에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2021년에는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를 각각 선정했기 때문에 일반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어린이부문에서만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모두 3개로 양산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부산시의 '원 북 원 기장' 및 인천시의 '동구 어린이 한 책 읽기'이다. 청소년책만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도 3개로,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안동시 한 책 읽기', 인천시의 '책 읽는 부평'이 이에 해당한다.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첫해인 200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해서 어린이책을 선정하였고, 김중미의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낮은산 2016)를 선정한 게 2017년부터는 2018년 손원평의 『아몬드』(창비 2017), 2021년 이꽃님의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문학동네 2020) 같이 청소년수준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책 읽는 부평'에서 선정된 책들도 대부분 2014년 김려령의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문학동네 2011), 2019년 이현의 『푸른 사자 와니니』(창비 2015), 2020년 이희영의 『페인트』(창비 2019) 같이 청소년 독자수준 책들이었다.

일반과 어린이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동해시 올해의 책', 부천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군포시의 '원북 원 군포' 등 모두 14개이다(24.6%). '원북 원군포'는 2018년 이후 진행된 않지만, 첫해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일반부문에서만 책을 한 권 선정했고, 마지막 시행연도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일반과 어린이부문으로 나누어 책을 선정했다. 2017년에는 일반부문에서 김무곤 작가의 『빛의 과거』를 선정했고, 2018년에는 장석주 작가의 산문집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를 각각 선정하였다. '원북 원 군포'처럼 일반부문에서 순수히 성인 수준 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는 일반부문에서 종종 청소년수준의 책을 선정했다. 충남 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이 진행하는 논산·계룡시의 '한 책 함께 읽기'에서는 일반부문에서 2018년 『내일은 내일에게』, 2020년 『페인트』 등 청소년책들이 선정되었고, '동해시 올해의 책'도 일반부문에서 2019년 『아몬드』, 2020년 『나는 설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같은 청소년책이 선정되었다.

일부 '한 책' 프로그램들은 아예 일반과 청소년부문을 묶어서 책을 선정한다고 선언했는데, 그러는 경우 거의 대부분 청소년책을 선정했다. 예를 들어, 인천시의 '계양구 올해의 책'은 '성인/청소년'과 '어린이' 부문으로 나누어 책을 선정하면서, '성인/청소년' 책으로 2019년 『우연한 빵집』, 2020년 『오즈의 의류수거함』을 선정했다. '창원의 책'도 '일반/청소년' 부문에서 책을 선정하면서 2019년 『아몬드』, 2021년 『달러구트 꿈 백화점』 등 청소년책을 선정했고, '책 섬, 제주. 올해의 책'도 '일반/청소년' 부문에서 2019년에 『아몬드』를 선정했다.

일반, 청소년 및 어린이의 3개 부문에서 각각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양주시의 '양주의 책', 의정부시의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올해의 책', 평택시의 '책 읽는 평택' 등 26개 '한 책' 프로그램이다(45.6%). 이런 경우에 비로소 일반부문에서 성인 수준의 책들이 선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11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으로 시작된 안산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2015년부터 일반, 청소년 및 어린이부문에서 연령대별로 책을 선정하면서, 일반부문에서 2019년 김숨 작가의 『너는 너로 살고 있니』, 2020년 은희경 작가의 『빛의 과거』, 2021년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등 비교적 독서수준이 높은 문학책을 선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원북

원부산'은 2004년 첫해부터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였는데, 2018년 청소년책 『아몬드』를 선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일반대상 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일반, 청소년 및 어린이 부문에서 각각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 일반부문에 2020년 『선량한 차별주의자』, 2021년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같은 일반 독서수준 책을 선정하고 있다.

마. 책 선정 부문의 변화

지난 20년 사이 국내 '한 책' 프로그램들은 책의 선정 면에서 변화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한 책' 독서운동의 방향에도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일반부문에서만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시행연도에 어린이책이나 청소년책 부문에서 책을 선정하는 여러 '한 책' 프로그램들도 출범 시에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원북 원부산'을 비롯하여, 평택시의 '한 책, 하나 되는 평택'도 2008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5년까지는 한 권의 책을 선정했으나, 2019년부터 일반, 청소년 및 어린이부문에서 각각 책을 선정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책 읽는 평택'으로 바꾸었다. 2006년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선정하면서 출범한 '책 읽는 청주'는 2017년부터 어린이책을 함께 선정하기 시작했다가, 2019년부터는 청소년부문을 추가하여 세 권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구미시의 '한 책 하나 구미 운동'은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시작으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였으나, 2009년 이금이의 『너도 하늘말나리아』(푸른책들 2002), 2011년 안소영의 『책만 보는 바보』(보림 2005) 등 주로 일반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독자층인 책들을 선정했다. 이후 2019년부터는 일반과 어린이부문에서 각각 한 권씩을 선정하고 있다. 광양시의 '시민 한 책 읽기' 또한 2010년부터 박영희의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삶이 보이는 창 2007) 같이 매년 청소년책을 한 권 선정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일반, 청소년 및 어린이부문에서 선정하고 있다.

'한 책' 프로그램에서 책 선정 부문의 변화는 실제로는 '한 책' 프로그램의 목표와 지향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부분 변화는 일반부문에서 책을 선정하다가 어린이나 청소년부문으로 분화하며 확장하는 형태이다.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하는 '한 책' 프로그램의 집중성이라는 특성에 전면적 변화가 생긴 것이다. 책 선정 부문을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책을 선정하더라도 같은 주제 등 어떤 공통요소가 있다면, 일관성 및 집중성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따로 책을 선정하는 40여 개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지금까지 선정된 책들은 대부분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별다른 접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동해시 올해의 책'은 매년 일반과 아동 부문에서 한 권씩 책을 선정한다. 2018년 이기주의의 『언어의 온도』(말글터 2016)와 백희나의 『알사탕』(책읽는곰 2017), 2019년 손원평의 『아몬드』(창비 2017)와 박종진의 『북극곰이 녹아요』(키즈엠 2017), 2020년 조정진의 『임계장 이야기』(후마니타스 2020)와 이은재의 『나는 설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잇츠북 2019), 2021년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문학동네 2019)와 박보람의 『어둠을 치우는

사람들』(노란상상 2021)을 일반부문과 아동 부문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매년 선정된 책들은 주제 면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군포시의 '원북 원군포'에서도 2017년 김무곤의 『흔들리지 않는 힘』(더숲 2017), 김진희의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문학동네 2015), 2018년 장석주의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문학세계 2016), 신정일의 『친절한 돼지씨』(바우솔 2015)를 일반부문과 아동 부문에서 각각 선정했다. 이 책들 또한 주제적 연관성이 없다. 일반, 청소년 및 아동 부문에서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 들도 마찬가지다. '책 읽는 평택'은 2021년 일반부문에서 김보통의 그림 에세이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한겨레출판사 2018), 청소년부문에서 이은용의 소설 『내일은 바게트』(문학과지성사 2014) 및 어린이부문에서 이명환의 그림책 『미장이』(한솔수북 2020)를 각각 선정했다. 서로 다른 연령대에서 선정된 책들이 아무런 접점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 책' 프로그램 선정책의 분석

가. 선정책의 빈도순 분석

지난 2003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57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모두 729종 1,119권이다. 다음 <표 2>는 지금까지 선정된 729종의 책들이 각각 몇 개의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되었는지, 빈도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의 맨 왼쪽 컬럼은 이 책들의 선정에 따른 누적 '한 책' 프로그램 수를 나타낸다.

<표 2> '한 책'의 선정빈도: 729권(2003년-2021년)

선정 프로그램	책 수	표제	책 총수
15	1	아몬드(손원평)	15
13	1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	13
11	1	페인트(이희영)	11
10	1	당신이 옳다(정혜신)	10
9	3	두근두근 내 인생(김애란), 체리새우(황영미),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27
8	3	시간을 파는 상점(김선영), 시인 동주(안소영),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24
7	2	역사의 쓸모(최태성), 열두 발자국(정재승)	14
6	4	소리 질러, 운동장(진형민), 언어의 온도(진형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김초엽), 한밤중 달빛 식당(이분희)	24
5	8	강남사장님(이지음),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이꽃님) 등	40
4	23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김려령), 담을 넘은 아이(김정민), 회색인간(김동식) 등	92
3	36	가시고백(김려령), 딜러구트 꿈 백화점(이미예), 모두 잠언(김중미) 등	108
2	95	턱헤옹주(권비영), 디디의 우산(황정은), 물에 잠긴 아버지(한승원) 등	190
1	551	개밥바라기별(황석영),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귀신고래(김일광) 등	551
	729		1,119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선정된 729권의 고유한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선정된 책은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이다.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이 책은 청소년 성장소설로 분류되는데, 2017년 충남 서산의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에서 처음 선정된 이래, 모두 15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아몬드』는 2018년에만 '양주의 책', '관악의 책', '구로의 책', 광양시의 '시민 한 책 읽기' 등 모두 10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표 1>에 따르면, 춘천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12개 '한 책' 프로그램이 2019년 이후 시작되었다. 따라서 2018년에는 모두 43개 지역에서 '한 책'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10개 '한 책' 프로그램(23.3%)에서 동시에 『아몬드』를 선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해 진행된 '한 책' 프로그램들의 사분의 일 정도가 『아몬드』를 선정하여 읽었다. 2019년에는 '동해시 올해의 책'과 '책 섬, 제주, 올해의 책'에서 읽을거리로 선정되었다. 『아몬드』는 '관악의 책' 등 7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는 일반대상 책으로 선정되거나, 일반과 청소년이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되었다.

역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아몬드』 다음으로 많이 선정된 책은 김지혜의 소설 『선량한 차별주의자』(창비 2019)이다. 이 책은 2020년에만 전남 순천시의 'One City One Book', '원북 원부산', 울산광역시의 '함께 읽는 북구의 책' 등 모두 13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특히 이 책은 인천교육청의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과 전남교육청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선정되어, 교육청 소속 여러 공공도서관들에서 함께 읽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역시, 2020년 전국에서 진행된 51개 '한 책' 프로그램 가운데 사분의 일 정도(25.5%)에서 동시에 선정되었다.

모두 11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이희영 작가의 청소년 소설 『페인트』(창비 2019)는 2020년 용인시의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부천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10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19.6%), 2021년에는 서산시의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한 곳에서만 읽을거리로 선정되었다. 이 책 또한 청소년 소설이지만, '한 책', '함께 읽어요!!', '경남의 책' 등 3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는 일반부문의 읽을거리로 선정되었다.

비소설로서 가장 많이 선정된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해냄 2018)는 '광주·전남 특' 등 모두 10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김애란 작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창비 2011), 황영미 작가의 청소년 소설 『체리새우: 비밀 글입니다』(문학동네 2019) 및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 2000)은 각각 9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특히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3년 국내 최초의 '한 책' 프로그램인 서산시의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에서 맨 첫 번째 '한 책'으로 선정된 이후 여러 차례 다른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되었다. 이 책은 2005년 서울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선정되었고, 2006년 부천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2007년 구미시의 '한 책 하나 구미운동'과 포항시의 '올해의 원북'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2011년 '성북구 한 책 읽기', 2012년 전라남도 '올해의 책 함께 읽기', 2013년 울산시 북구의 '함께 읽는 북구의 책'과 용인시의 '올해의 책, 함께 읽기'에 선정된 이후로는 더 이상 선정되지 않았다.

이 책은 우유희와 김종성의 연구(2014, 319)에서는 모두 11회 선정되어 2014년 기준, 가장 많이 선호된 책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는 지금까지 9회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지난 십 년 가까운 기간에 더 이상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중요한 책으로 기록될 수 있다.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최태성 작가의 『역사의 쓸모』(다산초당 2019)와 정재승 작가의 『열두 발자국』(어크로스 2018)은 둘 다 비소설 인문학책으로서 각각 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허블 2019) 등 4권은 6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또한 안오일 작가의 청소년 소설 『녹두밭의 은하수』(다른 2020) 등 8권의 책은 5개 프로그램에서, 김려령 작가의 어린이 소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문학동네 2011) 등 23권의 책은 4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심윤경 작가의 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한겨레출판 2003) 등 36권은 각각 3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권비영 작가의 소설 『덕혜옹주』(다산책방 2009) 등 95권은 각각 2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한편 2012년 용인시의 '올해의 책, 함께 읽기'에 선정된 황석영 작가의 『개밥바라기별』(문학동네 2012) 등 553권은 단 한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전체 선정된 책 729종의 사분의 삼 정도(75.6%)는 단 한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나. 선정책의 독서수준과 장르

지금까지 57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읽을거리로 선정된 책 729종의 독서수준, 장르 등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3〉에 보는 바와 같다. 이 책들의 독서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특정 책이 개별 '한 책'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문에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참조하였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한 책'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이문드』는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목록에서 검색하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서지레코드에 주제명은 '한국 현대 소설[韓國現代小說]' 및 '청소년 문학[靑少年文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은 여러 '한 책' 프로그램에서 일반부문에서 선정된 바 있지만,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쳐 이 책의 독서수준을 '청소년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 책의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 분류기호는 813.7로 주어졌으므로, 이 책의 장르를 '문학'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책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표 3〉 '한 책'의 독서수준 및 장르별 구분

독서수준	전체		문학		비문학		국내서		번역서	
	책수(권)	비율(%)								
일반	313	42.9%	273	87.2%	40	12.8%	299	95.5%	14	4.5%
청소년	142	19.5%	139	97.9%	3	2.1%	138	97.2%	4	2.8%
어린이	274	37.6%	272	99.3%	2	0.7%	262	95.6%	12	4.4%
합계(권)	729	100%	684	93.8%	45	6.2%	699	95.9%	30	4.1%

‘한 책’으로 선정된 책 729종의 독서수준을 보면, 일반 수준 책은 313종(42.9%), 청소년책은 142종(19.5%), 어린이책은 274종(37.6%)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정된 1,119권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일반 수준 책은 471권(42.1%), 청소년책은 227권(20.3%), 어린이책은 421권(37.6%)으로 그 구성비가 약간 달라진다. 일반 책의 비율은 조금 낮아지고(-0.8%), 청소년책의 비율은 조금 높아졌다(+0.8%).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몬드』, 『페인트』, 『체리새우』 같은 몇몇 청소년책들이 많은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되어 선정빈도의 상위권에 있다. 이러한 청소년책들은 일반과 청소년부문을 나눈 ‘한 책’ 프로그램의 청소년부문에서 선정되기도 하지만, 일반부문 혹은 일반/청소년부문에서 모두가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어 선정 비율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책’으로 선정된 729종의 장르를 보면, 절대적으로 문학책의 비중이 컸고, 거의 대부분 국내 작가의 저서이다. 전체 729종 중 문학책은 모두 684종(93.8%), 비문학책은 45종(6.2%)으로 문학책의 선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독서수준으로 구분하면 일반 책 313종 중 문학책은 273종(87.2%), 비문학책은 40종(12.8%)으로 비문학책은 주로 일반부문에서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책은 전체 142종 가운데 3종(2.1%)만이 비문학책이었다. 2016년 전남교육청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로 장성공공도서관에서 선정한 전국사회과교과연구회의 『독도를 부탁해』(서해문집 2011), 2008년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에서 선정한 강양구의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뿌리와 이파리 2006), 2021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정한 이동학의 『쓰레기책』(오도출판 2020)만이 비문학책이었다. 어린이책은 전체 274종 가운데 단 2종(0.75)만이 비문학책이었다. 2020년 ‘원북 원기장’에서 선정된 최재천의 『생명, 알면 사랑하게 되지요』(더큰아이 2018)와 이진규 작가의 『어찌지? 플라스틱은 들고 돌아서 돌아온대』(생각하는 아이지 2016), 단 2권만이 비문학책이다. 특히 어린이책은 문학 분야 책(272권, 99.3%)의 선정 비율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한 책’ 프로그램의 선정책 1,119권을 기준으로 하면 비문학책의 비중은 훨씬 더 줄어 든다. 45권의 비소설은 모두 60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전체의 5.4%에 해당할 뿐이다. 모두 10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3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설민석의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세계사 2016), 각각 2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헤민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쌤인파커스 2012), 김수영의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꿈꾸는 지구 2019), 최재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및 이정모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바틀비 2018), 6권을 제외한 다른 비소설 39권은 각각 한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만 선정되었다.

전체 729권 중 국내작가의 책은 모두 699권(95.9%), 번역서는 앞서 언급한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은 흐른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동서문화사 2005) 등 30권(4.1%)이었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의 책’에서 2016년 선정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김영사 2015), 2017년 선정된 알랭 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은행나무 2003) 같이 일반부문에서 선정된 번역서가 14권

(4.5%)이고, 2006년 부천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서 선정된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폴빛 2000), 2015년 인천시 ‘남동구 한 책 읽기’에서 선정된 로버트 먼치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북뱅크 2002) 등 어린이책은 12권(4.4%)이다. 청소년책은 2009년 서울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서 선정된 로버트 뉴턴의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사계절 2005) 등 4권(2.8%)으로 선정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 ‘한 책’ 프로그램들은 ‘한 책’의 추천 및 선정 과정에서 국내작가의 책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작가의 책인 번역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서는 번역서를 종종 ‘한 책’ 목록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포리스트 카터의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아름드리 미디어 2003),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현대문학 2009) 및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친구 하자』(현복스 2011)를 선정했다. 2012년에는 한나 요한젠의 『오리와 부엉이』(꿈터 2005), 2013년 프랑수아 를로르의 『꾸삐씨의 행복여행』(오래된 미래 2005)과 레비 핀폴드의 『블랙 독』(북스토리아이 2013)을 선정했고, 2016년 로이스 로리의 『기억전달자』(비룡소 2007), 2017년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창비 2016), 2020년 타니아 로이드 치의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시공주니어 2018)를 선정하는 등, 거의 매년 한두 권의 번역서를 추천 책 목록에 포함시켰다.

다. 선정연도와 발행연도 간 시차

지금까지 57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1,119권의 선정연도와 발행연도 간 시차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에 보는 바와 같다. 선정된 책의 종수는 729종이지만 특정한 책이 여러 개의 다른 ‘한 책’ 프로그램에서 다른 시점에 선정되기도 하므로, 전체 1,119권을 대상으로 책의 발행연도와 ‘한 책’ 프로그램에서의 선정연도 간 시차를 계산하였다.

<표 4> ‘한 책’ 선정과 발행연도 간 시차

선정연도	시차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합계	평균시차
2020년	권수	6	91	41	7	6	6	7	164권	1.88년
	비율	3.7%	55.5%	25.0%	4.3%	3.7%	3.7%	4.3%	100%	
2021년	권수	10	103	27	13	3	0	2	158권	1.39년
	비율	6.3%	65.2%	17.1%	8.2%	1.9%	0%	1.2%	100%	
전체	권수	111	508	226	95	55	39	85	1,119권	2.16년
	비율	9.9%	45.4%	20.2%	8.5%	4.9%	3.5%	7.6%	100%	

<표 4>는 전체 1,119권의 발행연도와 특정한 ‘한 책’ 프로그램에 선정된 연도 간 시차를 보여주는 동시에 특별히 2021년에 선정된 158권과 2020년에 선정된 164권의 발행연도와 선정연도 간 시차도 예시하였다. 선정연도와 발행연도 간 시차는 예를 들어, 2020년에 발행된 책이 같은 해에 진행된

‘한 책’ 프로그램에 선정된 경우, 0년으로 간주하였고, 2021년에 선정된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선정된 1,119권 가운데 ‘한 책’ 선정연도와 발행연도가 같은 책, 즉 시차가 0년인 책들은 모두 111권으로 9.9%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발행된 김일광 작가의 『귀신고래』는 같은 해에 ‘원북 원포항’에서만 단 한 번 선정되어 시차 0년으로 간주되었다. 2012년 발행된 김려령 작가의 『가시고백』은 같은 해 ‘원북 원군포’와 ‘함께 읽는 북구의 책’에 선정됨에 따라 시차 0년이 2건, 2013년 서울시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선정됨에 따라 시차 1년이 1건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 책’ 선정연도와 발행연도의 시차가 1년인 책들은 모두 508권(4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2019년 발행된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2020년 모두 1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11건 모두, 시차 1년에 해당하였다. 2008년 발행된 『엄마를 부탁해』는 다음 해인 2009년 서산시의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책 읽는 청주’ 등 6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시차 1년이 6건이 되었고, 2012년 전라남도의 ‘올해의 책, 함께 읽기’에 선정되었을 때는 시차 4년으로 간주되었다.

‘한 책’ 선정연도와 발행연도의 시차가 2년인 책들은 모두 226권(20.2%)이었다. 예를 들어, 2007년 발행된 이순원 작가의 『나무』는 2009년 순천의 ‘올해의 선정도서’로 선정되었고, 2018년 발행된 구병모 작가의 『네 이웃의 식탁』은 2020년 서울시 중구의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되어, 각각 시차 2년으로 간주되었다. ‘한 책’ 선정연도와 발행연도의 시차가 3년인 책들은 95권(8.5%)으로 2007년 발행되었으나 2010년 서울시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위한 ‘올해의 한 책’에 선정된 박완서 작가의 『친절한 복희씨』, 2012년 발행되었으나 2016년 ‘책 읽는 청주’에 선정된 박범신 작가의 『소금』 같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1,119권 가운데 비교적 신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행 2년 이내에 선정된 책, 즉 시차가 2년 이내인 책들이 845권(75.5%)으로 4분의 3을 넘어선다. 아울러 발행과 선정 간 시차가 3년인 책들(95권, 8.5%)까지 포함하면 940권(84.2%)으로 국내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의 최신성을 알 수 있다.

‘한 책’ 선정연도와 발행연도 간 시차가 5년을 넘어서는 책은 모두 85권(7.5%)이다. 이 가운데 발행연도와 ‘한 책’ 선정연도 간 시차가 가장 큰 책은 2009년 충북 청주시의 ‘책 읽는 청주’에서 선정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이 책은 초판이 1978년에 발행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최초 발행과 ‘한 책’ 프로그램 선정 사이에 31년의 시차가 있다. 다음으로 시차가 큰 책은 이금이 작가의 『너도 하늘말나리아』이다. 2002년 발행된 이 책은 2020년 서산의 ‘범시민 한 책 읽기’에 선정되어, 18년의 시차가 있었다.

2006년 ‘책 읽는 청주’에서 선정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범우사 2000)와 2014년 ‘구로의 책’에 선정된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동서문화사 2005) 등 일부 번역서들은 원래 발행된 지 오래된 책들이다. 따라서 발행과 ‘한 책’ 선정 사이 시차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책’에서 선정된 번역서의 국내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관악구의

'관악의 책'에서 2016년 선정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김영사 2015)와 2017년 선정된 알랭 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은행나무 2003) 등 번역서들은 비교적 신간이지만, 이들도 모두 국내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시차를 계산하였다.

이전 우윤희와 김종성의 연구(2014, 321)에서 '한 책' 426권의 선정연도와 초판 출판연도의 시차가 평균 3.1년임을 발견한 바 있다. 이 결과와 비교하자면, 현재 1,119권의 발행연도와 선정연도 간 평균시차는 2.16년이다. 예외적으로 31년의 시차를 가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제외한 1,118권의 평균시차는 2.13년이다. 지난 십 년간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수는 거의 2.6배가 되었는데, 선정과 발행연도 간 시차가 거의 1년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그동안 점점 더 신간을 선정하게 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표 4> 상단에서 2020년 선정책 164권과 2021년 선정책 158권의 발행연도와 선정연도 간 시차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신간에 대한 선호는 더욱 분명해진다. 시차가 0년부터 2년까지인 책들이 2020년에는 138권(84.1%), 2021년에는 140권(88.6%)이었다. 또한 선정된 책의 평균시차는 2020년 1.88년, 2021년 1.39년으로 상기한 전체 책들의 평균시차 2.16년보다도 값이 작다. 단 2년만 비교한 것이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 '한 책' 프로그램에서 점점 더 새 책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내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고전 혹은 구간 이라고 불릴 만한 오래된 책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모두 5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던 안도현 작가의 『연어』(문학동네 1996)는 발행 8년 후 처음으로 2004년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에서 선정되었고, 발행 15년 후인 2011년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에서도 선정된 바 있다. 신경숙 작가의 『외딴 방』(문학동네 2001)과 최재천 교수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이름답다』(효형출판 2001)는 발행된 지 14년 후인 2015년 각각 '구로의 책'과 '서귀포 시민의 책 One City One Book'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 2000)은 2003년 서산에서 맨 처음 한 책으로 선정되었던 당시에는 발행된 지 삼 년 된 책으로서 비교적 신간이었으나, 13년이 지난 2013년 용인시 '올해의 책, 함께 읽기'와 울산시 '함께 읽는 북구의 책'으로 각각 선정됨으로써, 『연어』와 더불어 '한 책'으로서 드물게 오랜 수명을 기록했다.

IV. 결 론

국내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처음 도입된 2003년 당시, 전국에 공공도서관은 471개에 불과했고, 1개관 당 장서 수는 73,179권에 지나지 않았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25). 공공도서관 1개관 당 서비스 대상 인구수는 102,000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 말 기준 공공도서관은 1,172개, 1개관 당

장서는 인쇄자료 101,234권으로 증가하였고(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1) 서비스 대상 인구수는 44,223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이십 년 사이 공공도서관의 수적 및 질적 측면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라, 지역사회 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공공도서관의 존재는 점점 더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환경의 변화 속에서 2003년부터 그동안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57개 ‘한 책’ 프로그램들은 중단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 ‘한 책’ 독서운동을 도입하면서 가졌던 일회성 혹은 단명성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윤정옥, 2021b, 110). 국내에서 ‘한 책’ 독서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특별한 공공도서관 독서운동의 한 가지 모형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었지만, 점차 국내 공공도서관 상황에 맞추어 변화해가는 면모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책’ 프로그램의 일반적 현황 및 이 ‘한 책’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선정한 책과관련된 몇 가지 집합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57개 ‘한 책’ 프로그램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작되었고, 2021년 기준, 그동안 중단된 8개 ‘한 책’ 프로그램을 제외한 ‘한 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매년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수의 ‘한 책’ 프로그램이 시·군단위 지자체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33개, 57.8%), 서울, 부산 등 광역시·도 단위 ‘한 책’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에 맞추어 ‘책 읽는 문화도시 구축’이나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같은 목표를 실행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관심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원북 원군포’나 ‘관악의 책’과 같이 관할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중단되기도 하고, ‘책 읽는 청주’와 같이 책 선정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례(윤정옥, 2021a)도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많은 ‘한 책’ 프로그램은 한 권의 책이 아닌 여러 권의 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단 한 개 부문에서만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17개이며(29.8%), 그 가운데 처음부터 ‘한 책’ 독서운동이 지향했던 바대로 일반 독자 대상으로 책을 선정하는 ‘한 책’ 프로그램은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북 원부산’이나 ‘책 읽는 청주’ 같이 처음에는 일반부문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했던 ‘한 책’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부문에서도 책을 선정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따로 선정된 책들 간 주제나 내용상 연관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 청소년이 같이 읽을 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독서수준을 종종 청소년에 맞추게 되면서, 순수한 일반 대중의 독서수준이나 관심거리에 적합한 ‘한 책’이 선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한 책’ 프로그램들이 연령대별로 각각 책을 선정함으로써 ‘한 책’ 독서운동이 처음부터 지향한 일반 성인대중이라는 대상의 집중성을 잃게 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책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음에 따라 한 권의 책과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의 집중성 또한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구입대상 책의 종수 증가에

따라 개별 책의 구입권수 감소, 여러 명의 작가초청, 분산된 책과 주제관련 행사 기획 등의 어려움은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몇몇 사서들이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처럼 연령대별로 따로 책을 선정하는 것은 분산에 따른 제한점을 갖지만,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행사로서 개방성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매년 ‘한 책’ 프로그램에서 모든 연령층을 위해서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57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모두 729종 1,119권으로, 이 가운데 684종(93.8%), 특히 어린이부문 책 274종 가운데 272종(99.3%)이 소설책이다. 또한 선정된 책의 발행연도와 선정연도 간 평균시차는 2.16년이며, 2020년과 2021년 선정책들의 발행연도와의 시차는 각각 1.88년과 1.39년으로 점점 더 신간을 선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아몬드』, 『선량한 차별주의자』, 『페인트』 등 ‘한 책’ 독서운동사상 가장 많이 선정된 책들은 선정시점인 2020년과 2021년에 신간이나 화제작으로서, 각각 십여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선정되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신간 베스트셀러들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전에 Library Journal의 Monaghan(2014)은 Seattle Public Library의 워싱턴 도서관 프로그램 매니저였던 Chris Higashi의 말을 인용하여 ‘한 책’ 독서운동의 성공요인은 “적합한 책(the right book)의 선정”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그것이 실패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어떤 책을 선정하는지에 따라 독서와 토론, 행사 등의 방향이 결정되고,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최신화제작을 선정하고, 참여도를 높히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최근 국내 ‘한 책’ 프로그램들의 이러한 책 선정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기도 한다. 다만 개별 ‘한 책’ 프로그램이 가진 목표나 책의 선정 기준 등이 실제로 이러한 책들의 선정 시에 적절히 반영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상당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된 국내 지자체의 ‘한 책’ 프로그램들은 종종 지자체장이 ‘한 책’을 선포하는 개막식과 더불어 저자초청강연, 다양한 형태의 독서와 토론, 전시회, 음악회 등 전형적 행사들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정기적인 지역행사로서 가시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책 읽는 평택’이나 ‘성북구 한 책 읽기’처럼 ‘한 책’ 프로그램이 종종 주관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된 사례들도 있다(윤정옥, 2021b). 국내에 ‘한 책’ 독서운동을 처음 도입할 때,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책의 선정부터 행사의 기획까지 지역사회 공공도서관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의 적극적 독서진흥 캠페인을 지향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의 ‘한 책’ 독서운동은 ‘성북구 한 책 읽기’ 같은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주관도서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마련하며, 주민들은 흥미가 있을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적이며 정기적인 도서관 연례행사가 되어가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입 이십 년이 다가오는 ‘한 책’ 독서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한 책’ 프로그램들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지속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책을 선정하여

읽고 있는지 등 현황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록의 과정에서 ‘한 책’ 독서운동을 위해 시작된 개별 ‘한 책’ 프로그램들이 어떤 구체적 목표를 가졌는지, 어떤 책을 어떤 이유로 선정하였는지, 그 책을 갖고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독서와 토론문화의 진흥 등 성과를 과연 이루고 있는지 등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질문을 갖게 되었고, 문제의 진단 및 원인의 분석 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미처 다루지 못한 이러한 질문들은 향후 검토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22. 6. 13.). 독서문화행사. 선정도서. 출처:
https://library.daegu.go.kr/jungang/module/bookOfYear/index.do?menu_idx=156
- 우윤희, 김종성 (2014).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309-336.
- 윤유라 (2017). 한국의 대중독서운동 중 ‘한 책’ 운동에 대한 사례연구. 인문학논총, 43(8), 193-215.
-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5-66.
-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4.
- 윤정옥 (2007).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5-32.
- 윤정옥 (2008).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63-81.
- 윤정옥 (2009).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311-333.
- 윤정옥 (2012).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책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47-68.
- 윤정옥 (2013a).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27.
- 윤정옥 (2013b).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서울: 조은글터.
- 윤정옥 (2017).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0년과 ‘한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45-64.
- 윤정옥 (2018).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 10년과 선정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52(1), 159-178.
- 윤정옥 (2021a). '책 읽는 청주'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9-84.
- 윤정옥 (2021b). 한 책, 한 도시, 그리고 우리 도서관.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이국환 (2018). 독서운동으로서 '한 책, 한 도시' 연구 - '원북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81-110.
- 이용재 (2006).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5-25.
- 이용재 (2008).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전략 -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47-265.
-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19-202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021.04.03-10.10; 2022.05.1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 통계. 출처: <https://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
- 한국도서관협회 (2004).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12. 30). 한 도시 한 책 읽기 (참여 도시). 출처: <https://www.readin.or.kr/home/onecity/organizationList.d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Available: <http://www.ala.org/ala/orc/onebookguide.pdf>
- Brock, P., Dunifon, S., & Nagel, L. (2016). Start with a story: five schools and a zoo use the One Book, One Community Model to bridge STEM into STEAM. Science and Children, 53(6), 48-53.
- Chicago Public Library (2021a, January 6). About OBOC. Available: <https://www.chipublib.org/about-oboc/>
- Chicago Public Library (2021b, January 12). Previous OBOC Titles. The Sixth Extinction: One Book, One Chicago 2019-2020. Available: <https://www.chipublib.org/the-sixth-extinction-one-book-one-chicago-2019-2020/>
- Fuller, D. & Sedo, D. R. (2004). Report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f One Book, One Community, Kitchener/Cambridge/Waterloo. ON, Canada, 9 November 2004, Unpublished Report.
- Harder, A., Howard, V., & Sedo, D. R. (2015). Creating cohesive community through shared

reading: a case study of One Book Nova Scotia, Partnership: The Canad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and Research, 10(1), 1-21. Available: <https://doi.org/10.21083/partnership.v10i1.3098>

Monaghan, E. M. (2014). One book well done. Library Journal, 139(14), 30.

University of Birmingham (2006). Beyond the Book: Mass Reading Events and Contemporary Culture of Reading in the UK, USA and Canada. Available: <http://www.beyondthebookproject.org>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Chan-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01-221.

Daegu Metropolitan Jungang Library (2022, June 13). Reading Events. Selected Books. Available: https://library.daegu.go.kr/jungang/module/bookOfYear/index.do?menu_idx=156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The 3rd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2019-2023.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04.03-10.10; 2022.05.18).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Public Library Statistics. Available: <https://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4).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Lee, Kook-hwan (2018). A study on 'One Book, One City' as a reading movement. Seokdang Nonchong, 72, 81-110.

Lee, Yong-Jae (2006). The present stage and prospects of the reading campaig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 Book, One City' projects.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5-25.

Lee, Yong-Jae (2008).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One Book, One City' campaign: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Busa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47-265.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0, December 30). 'One city, One Book' Reading (Participating Cities). Available:

<https://www.readin.or.kr/home/onecity/organizationList.do>

- Woo, Yun-Hee & Kim, Jong-Sung (2014).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for 'One Book, One C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309-336.
- Yoon, Cheong-Ok (2004). Trend and significance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with a focus on cases of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45-66.
- Yoon, Cheong-Ok (2005). An analysis of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7-44.
- Yoon, Cheong-Ok (2007). An Analysi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case study of campaig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5-32.
- Yoon, Cheong-Ok (2008). The Action plans for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a case study of 'Reading Cheongj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63-81.
- Yoon, Cheong-Ok (2009). A study on the community reading campaigns: 'The Big Read'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311-333.
- Yoon, Cheong-Ok (2012).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47-68.
- Yoon, Cheong-Ok (2013a).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27.
- Yoon, Cheong-Ok (2013b).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Seoul: Joun Geultoe.
- Yoon, Cheong-Ok (2017). An analysis of 'One Book's selected in twenty year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45-64.
- Yoon, Cheong-Ok (2018).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in 10 years of 'The Big Read' reading initia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159-178.

Yoon, Cheong-Ok (2021a). A research on the present state of 'Reading Cheongju' reading promotion campa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9-84.

Yoon, Cheong-Ok (2021b). *One Book, One City, and Our Libraries*.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Youn, You-Ra (2017). A case study on one of the public reading campaigns in Korea, the 'One Book' campaign: an analysis of 'A Book of Gimhae' project. *The Journal of Humanities (Dongui University)*, 43(8), 193-215.